# 공공근로도 '바늘구멍'

## 청년실업자·자영업자 대거 몰려 경쟁률 2.6 대 1

### 20~30대 신청자 28% … 작년보다 12% 늘어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는 김모(27)씨는 요즘 구청이 실시 중인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공공근로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그 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 입사시험을 준비해왔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줄곧 구직활동을 해왔으나 좁은 취업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처음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두드리면 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희망도 잠시. 계속된 장기불황 여파로 취업 문은 전보다 더 얼어붙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구직활동을 잠시 접고 공공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취업공부를 하면 할수록 손해만 커져 가니,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20~30대 구직자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여파로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공공근로에도 취업난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구청이 지난 20일 올 들어 2단계(2·4분기) 공공근로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모두 1천251명이며 이 중 20~30대 신청자는 345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7.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분기)엔 신청자 638명 중 20~30대가 100명(15.7%)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졸 또는 고졸 구직자·휴학생·자영업자(폐업)·조기명퇴자들이다. 공공근로 대상자는 18세 이상~65세 이하의 실업자나 고정수입이 없는 구직자·저소득층 위주로 선발된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3만2천원과 교통비 등 3천원 상당의 급여를 지원받는다.

업무는 불법광고물정비·하천제방 보수·불법투기단속·공원정비 등 단순노무직이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폭증한 이유는 연령층이 폭 넓고 업무가 비교적 쉬운데다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10명 중 6명은 '퇴짜'를 맞고 있다.

올해 2·4분기 모집인원은 486명으로 경쟁률은 2.6대 1에 이르고 있다. 구별로는 ▲동구 118명(모집인원 52명) ▲서구 210명(〃 56명) ▲남구 276명(〃 133명) ▲북구 409명(〃 120명) ▲광산구 238명(〃 115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신청자 638명 중 225명(35.3%)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노령층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경기 침체 여파로 청년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예산을 긴급 편성해 공공근로 모집인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3일 광주지방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식'에서 박영렬 광주지검장과 박종욱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 등이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법원·검찰 "다문화가정 지원 앞장"

## 광주고법, 이주민 단체 법률지원 협약

## 광주지검, 새날학교 38명과 자매결연

"올바른 다문화사회로의 성장·발전을 위해 법원과 검찰이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법원 등이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검은 23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검 중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식'을 열었다.

이번 자매결연에 따라 광주지검과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새날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법률상담, 저소득 학부모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새날학교는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38명이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공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광주시 광산구 평동 동사무소 내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문을 연 뒤 지난 2월 광산구 삼도 남초등학교 폐교부지로 이전했다.

앞서 20일에는 광주고법이 김관재 법원장과 방극성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단체 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들어갔다.

고법은 이번 협약에 따라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표 박공식 신부)와 함께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법률 교육 등 각종 법률적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고법은 ▲정기적인 법률상담(매주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이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위한 법원차량 제공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주민단체의 법원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주 영산포~광주 평동 송전철탑 98기 설치

# 주민 거센 반발 1년 넘게 '표류'

### 시공률 20% … 혁신도시 전력공급 차질 우려

"지가 하락 등으로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고압 송전철탑 건설은 결사 반댑니다."(나주시 노안면 장등마을 주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선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입니다."(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 송변전사업처)

한전이 추진중인 광주시 광산구 평동~나주 영산포 구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15만4천V 규모)이 표류하고 있다. 선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2007년 11월 공사착공 이후 16개월이 넘도록 '시공률 20%' 상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2004년 6월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된 광주·전남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용역을 거쳐 2007년 4월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전은 260억원을 들여 나주시 영산포 나주변전소에서 광주 평동까지 광주·나주 등 13개의 읍·면·동 32㎞에 걸쳐 송전철탑 98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한전은 2007년 7월부터 토지소유주에 대한 부지 편입 통보 및 토지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송전선로가 지나는 6개 읍·면·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건설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등마을 주민들은 2년 전부터 한전 전남본부 앞 등에서 항의집회를 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30명은 이날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 송변전사업처 앞에서 "마을에서 불과 144m 떨어진 곳에 송전철탑이 들어선다는데, 땅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냐?"며 "송전선로 지하매설 또는 현 위치에서 50m 가량 더 떨어진 곳으로 위치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현재 계획과 노선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남본부 관계자는 "마을별로 위치변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지부동"이라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전 학원강사 '덜미'

광주동부경찰은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학원강사 문모(45)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U모텔 객실에서 여중생인 K(15)양과 성관계를 맺은 뒤 용돈 명목으로 12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K양을 광주의 한 전자상가로 불러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유명학원 강사인 문씨는 지난해 3월에도 우연히 알게 된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K양에게 숙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여수산단 공사 현장 펌프카 운전사 숨져

23일 오후 1시께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 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콘크리트 타설차량) 운전사 이모(32)씨가 차량에 설치된 유압봉에 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이씨가 타설된 콘크리트를 건물 상단으로 쏘아 올리는 유압봉의 3단과 4단 틈에 끼여 숨져 있었다"며 "유압봉을 점검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광주 남부서장 하루만에 사의

지난 22일 경찰청 총경급 인사에서 광주 남부경찰서장에 임명된 박재현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이 하루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퇴임을 1년 앞둔 박 서장은 이날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서장은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했으며, 가족이 서울에 있음에도 광주로 발령이 나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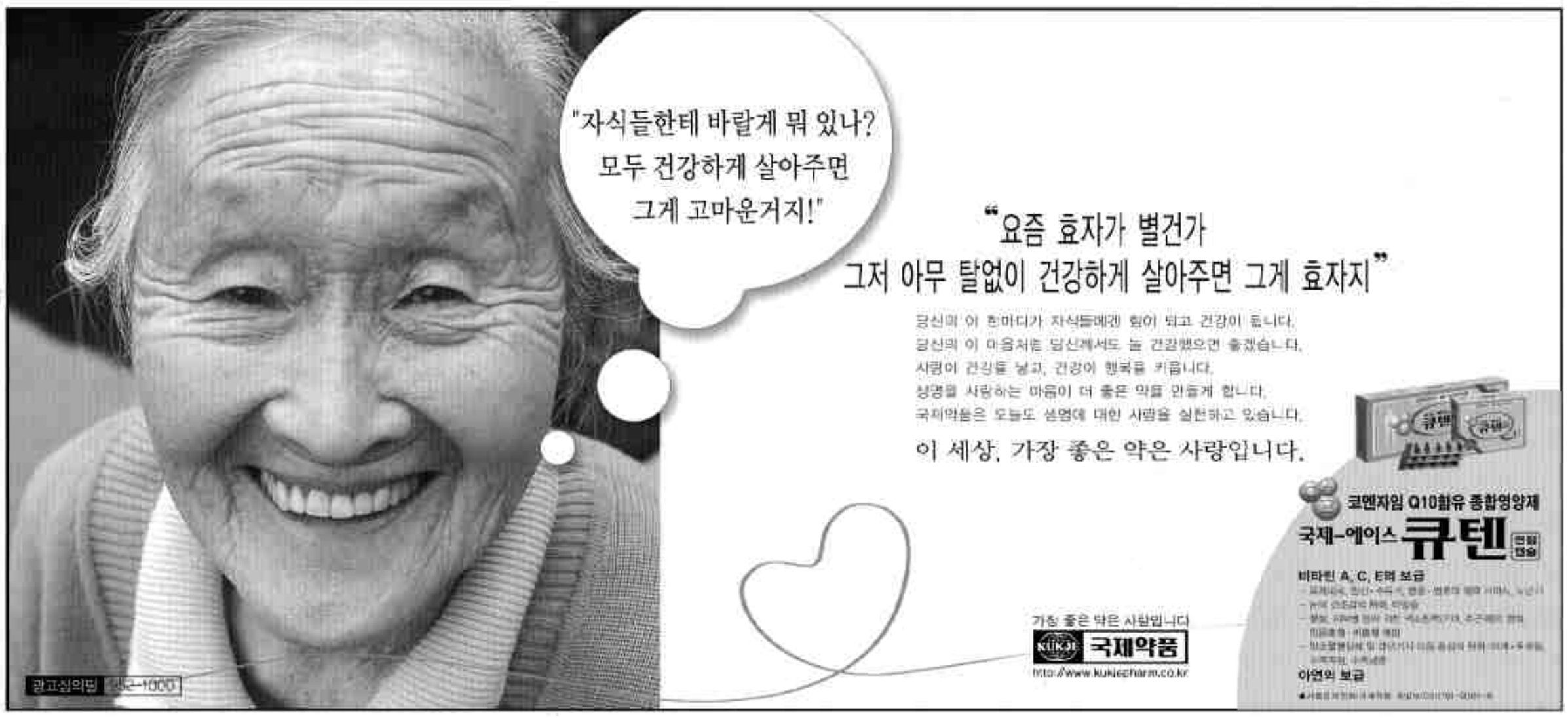
### 국밥집에서 술 안준다며 행패

쌍나팔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밥과 술을 주문했으나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집기를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은 23일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박모(55)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M국밥집에서 여주인 전모(55)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초장 그릇 등을 내던졌다는 것.

○…이날 국밥집을 홀로 찾은 박씨는 경찰에서 "주인이 '술은 집에 가서 마셔라'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났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